

한국미술
정보센터관장

걸어다니는 미술사전 김달진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의 올바른 역사가 된다.”

‘걸어다니는 미술사전’이라는 별명을 지닌 김달진 관장. 그의 별명은 미술작가나 전시회 정보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그에게 이 별명이 붙여지기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듣기 위해 지난 10일 홍대 근처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찾았다.

김달진(금속·89)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
한국미술정보센터관장
前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장



수집 (蒐集)

김 관장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소년이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대전으로 나가서 형님 내외분 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내성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면서 시간을 보낼 때 그는 자료수집이나 글을 쓰며 시간을 보냈다. 중학교 시절 그가 쓴 독후감, 기행문 등은 교지에 실릴 정도였다. 또한, 우표나 담뱃갑, 껌 상표 등을 모으기 시작해 미술 관련 자료를 수집하게 됐다. 그때는 지금처럼 미술 전시회가 많지 않아 그가 모을 수 있는 자료는 한정됐고, 그 또한 아무런 의식 없이 여성지에 실리는 ‘이달의 명화’ 같은 걸 단순히 뜯어 모으기만 했다.

1972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그는 ‘한국 근대미술 60년전’을 관람했다. 당시 경복궁 내 국립현대미술관(현재 경기도 과천시 위치)에서 열린 ‘한국 근대미술 60년전’은 1900년대 이후부터 60년간 우리나라 근대 작품을 모아 보여주는 전시회였다. 이 전시회에서 이중섭, 박수근 등 우리나라의 유명한 근대 작가 작품을 육안으로 봤던 그는 단순한 그림 감상을 넘어 또 다른 것을 느꼈다. 바로 유명 작가 몇몇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작가들에 대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외국 작가들의 명화만 모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작가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후 그는 헌책방을 드나들면서 오래된 미술 관련 책과 우리나라 근대 작가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나갔다.

정리 (整理)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다른 일을 하던 그는 미술자료 수집에 관한 일이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미술관, 화랑, 미술잡지사 등에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보내 1978년 월간지 <전시계> 사에 입사했다. 그 후 당시 홍익대학교 이경성 박물관장(이후 국립현대미술관장)에게서 한 번 와보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그는 연락을 받고 서양미술자료를 유파별로 색센트지에 정리해 놓았던 스크랩북 15권을 보자기에 싸가서 보여줬다. 그때의 인연으로 그는 1981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근무하게 됐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근무하던 그는 34살이라는 나이에 우리대학 금속공예학과에 입학해 만학도가 됐다. 사회적으로 졸업장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그 자신도 대학에서 학문적인 부분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학문적인 지식을 익히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대학에서 공부하기 전까지 전시장에 가서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가볍게 보고 쉽게 판단했다. 하지만 금속공예과에서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겪은 후부터 미술 작품을 보는 그의 시각은 바뀌었다. “저기 놓여있는 전시물이 작가로서는 온 힘을 다한 작품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1996년, 그는 15년 동안 일했던 국립현대미술관을 떠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랑 중 하나인 가나아트센터에서 5년 10개월간 자료실장과 총괄팀장을 역임했다. 그 이후 2001년 <서울아트가이드>를 창간하면서 개인연구소인 ‘김달진미술연구소’를 개소했다.

공유 (共有)

2001년 종로구 평창동에 개소한 김달진미술연구소는 2007년에 경복궁역 근처 종로구 통의동으로 이전했다. 그때도 많은 미술자료를 소유했던 그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수집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미술자료실을 개관했다. 처음엔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외부인들에게 공개하는 열람실 수준이었다. 일 년 뒤인 2008년, 그는 기존에 있던 미술자료실을 법적 조건에 맞춰 새로 갖추고 2종 박물관으로 등록했다. 이로써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정식으로 개관했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2종 박물관으로 등록되면서 그는 소장품의 질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직접 발품을 팔며 자료를 수집했다. 그의 노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박물관 소장품의 질이 높아졌고, 도리어 미술관이나 화랑 쪽에서 전시 관련 자료를 보내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도움은 받지 못했다. 그의 고향인 충북 옥천의 한 광에는 4.5톤 가량의 자료가 빛과 바람을 쐬지 못한 채 변질돼 가고 있다. 그는 “제가 가진 노하우로 직접 수집한 자료지만 결국에는 국가의 문화유산이 되는 건데...”라며 공간 확보 및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해 섭섭한 속내를 드러냈다.

응용 (應用)

그는 미술자료 수집 이외에도 미술·전시와 관련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전국 미술관 및 화랑의 정보를 알려주는 월간 <서울아트가이드>, 지난 전시회의 도록을 매달할 수 있는 미술 서적 온라인 쇼핑몰 ‘달진북닷컴(<http://www.daljinbook.com>)’, 그가 가진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한국미술정보센터’ 등을 만들었고, 해외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비엔날레에 참석할 수 있는 ‘김달진 아트투어’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잡지를 만들다가 사무실 한구석에서 소장품을 보여주던 것이 규모가 커져 박물관이 된 거고, 또 그것을 여러 사람과 공유하려다보니 정보센터가 된 거죠”라며 일을 진행하다가 어떤 필요에 의해 자연스레 활동하는 분야가 확장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가 진행하는 일 중 가장 큰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술인 인명록>의 발간이다. 그가 월간지 <전시계> 사에서 근무할 당시 우리나라 근대작가 인명록을 작성했는데, 그때부터 인명록을 책으로 엮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그는 관련 자료를 꼼꼼히 수집해 20여 년 만에 4천 9백여 명의 정보가 등재된 인명

록을 발간했다. 그가 발간한 인명록에는 1850년에서 1960년 사이에 출생한 한국 작가들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다. 창작 미술가뿐만 아니라 미술평론가, 미술사, 크리에이터, 미술행정가, 미술저술가가 같은 비창작 미술가도 포함하고 있다.

그는 인명록을 발간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어딜 가나 유명한 사람은 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존재 자체가 잊혀가요. 인명록을 통해 기본 자료로서 언제 태어나고 언제 타계를 했다 이런 것들을 남겨주는 거죠.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작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요.”

반쪽 인생

미술·전시계에서 많은 일을 해내는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반쪽 인생’이라는 평을 내렸다. 그의 온 신경이 오로지 미술 쪽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평가하던 그는 돌연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밝혔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너무 저만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아요. 일에 빠져 남편이나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죠. 현재 서울아트가이드에서 일하는 딸이나 문화예술경영 쪽을 공부하는 아들이 제가 살아온 길을 이해해주겠지만, 그래도 성장기에 잘 보살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섭섭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면이 미안하고...” 가족에게 미안함을 내비치는 그의 모습에서 가족을 아끼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발을 내디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요새는 삶의 목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절대 빈곤이 많아서 먹고사느라 바빴지만, 지금은 경제수준이 높아져서 절대빈곤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표를 ‘하고 싶은 것’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면 좋잖아요. 저는 자료수집을 좋아했지만,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변에서도 우려의 말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결국 좋아하던 일을 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방면의 선구자가 됐죠. 우리 후배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평생 목표로 설정하고 접근했으면 해요. 그리고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한 우물을 성실하게 팎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완전히 만족시켜줄 직장은 없는데, 작은 이유로 직장을 자주 옮기다보면 어딜 가도 오래 못 붙어 있어요. 가시적인 이익을 좇아서 자주 옮기다보면 남는 것도 없고... 결국 이 사회는 성실하면 어떻게든 알려지게 돼 있어요.”

평생 미술·전시 자료 수집이라는 한 우물을 판 그에게 ‘걸어다니는 미술사전’이라는 별명이 당연하다고 느껴졌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미술·전시라는 우물물이 그의 머리 속에 자연스레 스며든 것 같다.

이혜인 기자
김신애 수습기자